1920년대 후반기의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

金容稷

1

국민문학派란 명칭이 구체적으로 한 조직체를 이룬 협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근대문학사에의 한 사실이지만 1925년 이론과 신문
문학의 협동인 카프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一方의 인
이미울로기 성격이 시작되자 그에 대응, 자신의 문학적 인
立場을 재확
정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프의 성격 및rial 단位에 맞서
그들이 점점 행정의 旗幟가 민족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
民문학派란
그런 旗幟아래 자연발생으로 모여 한 흐름을 이룬 단위의
詩人, 作家
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

한편 국
民文
學派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선 그 成員人
물은 살피는

* 서울대國文學教授(國文學専攻)

1) 구체적으로 国民文學派의 形成은 1926년부터로 나타나고 또 그
下限선은
30년대 초반로 정하자. 国民文學派의 재계체에 해당되는 카프가 发足
한 것이 1925년이었다. 그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그
에 대한 反抗도 가능했으며, 이러한 변동에 国民文學派의 形成은 1926년으로
보 treeNode. 또한 30년대 초반에 이르면 카프는 그 자체에서 벗어진
問題點과 거듭된 外部의 影響을 받는 실정적인 의미에서 組織活動이 계속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国民文學派는 단면의 격수를 상실, 集團活動의 原動
力이 되어온 旗幟이, 점점 의미가 덜한데다가 정작 그들의 文學의 指向에도 여러가
지 難點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그 纜繩이 흐
리져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揚堂,
1949), 제2장 참조.
경우부터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참고로 밝히면 국민문학派의 구성원은 李光洙, 金東仁, 金 overcrow, 朱耀鉉, 崔南善, 申成魯, 鄭寅普, 孫文奇, 李秉岐, 李殷相, 廉想涉, 朴鍾和, 梁柱東, 金永鎮, 鄭麟風, 金鼎近年, 唐雲等이였다. 이 명단으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keletal 문학派는 實質的한 意味에서 1920年代 韓國文學의 元老大家과 중堅들을 總網羅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 展開된 文學活動의 意義 역시 그렸다. 사실 이세까지 우리 周邊에서 전개 되어온 文學活動은 그 表現媒體 자체를 예외없이 民族語에 의거해 왔다. 대량 民族의 言語를 택하는 계 文學活動인 이상 외來 이미울로기 보다 民族을 앞세워야 하리라고 본, 國民文學派의 發展 자체에는 풍분히 그나 뭔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작업은 그 性格上 부득이 논증의 方法을 歷史主義의 인 쪽에서 빌려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이간의 言及이 必要하리라 믿는다. 文學研究에서 있어서 歷史主義의 方法은 그것이 내부한, 難點 때문에 되풀이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다. 특히 戰後 우리 周邊의 文學研究는 1945年 言文學은 文學의 事實로만 보고자 하는 反歴史主義의이며, 내재的 연구의 與ひ者들에 의한 衝擊으로 간장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文學研究에서 있어서 歷史主義의 인 方法는 文學 의의 사실로 文學을 寸断해버리는 犯則의 常習犯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羅命・ 周烈도 지적된 바와같이 言論系 言語의 自足한 存在일 뿐이며 그 理解과 評價가 作品외의 사실을 視野하되 排除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 인가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2) 文學의יס바른 理解를 위해 人間과 그들

2) René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7. 여기서 Wellek은 비록 新批評이라고 할지라도 作品의 理解를 위해 歷史의 情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ew Critics did not mean and could not be conceived to mean a denial of the relevance of historical information for the business of poetic interpretation. Words have their history; Genre and devices descend from a tradition; poems often refer to contemporary realities.
의 20.84% 生活，現實과 文化背景에 논하는 것이 榜物이라고는 하나 정작 우리 가 呈現 媒體로 삼는 語彙들은 歷史的 產物이며 人間生活的 軌跡이기도 하다. 또한 作品을 순다는 것은 강연을 택하고 意象을 취하는 일을 가 리킨다. 그런데 어떤 강연나 意象도 賦俗이나 傳統과 무관한 것은 없다. 이와같은 一連의 사실은 文學이 宿命의으로 歷史와 傳統, 人間 生活에 密著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歷史와 傳統에 密著되어 있는 文學은 論譜한에 있어서 구대에 그림을 禁止, 排除해야겠다는 主張도 운동 한 것은 아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아직도 新批評의 影響적이 소멸 되지 않은 年代에 R. 스플리가 쓴 反分析批評, 文學史 擁護論은 그려내 로 우리에게 共感되는 바 크다. 3) 이 작業에서 傳用되는 歷史主義의 方法의 妥當性이 그려서 立證되기를 기대한다.

2

民族을 그 理念의 求心點으로 삼은 國民文學派의 活動 實績은 순수하 게 文學의 것에서 부터 教育, 社會 등 文化 全般에 관계되는 것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이제 그들을 정리, 聚題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時調을 중심으로 한 民族의 文學様式의 復興 括圖．
(2) 歷史小説 制作, 國土山河 禮讚 등을 통해 나타나는 民族精神 見 扬을 위한 活動．
(3) 國史研究, 古典 整理 등을 主軸으로 한 民族의 理念의 探求, 鼓吹 括圖．
(4) 기타 한국적인 것 全般에 擁現, 관心과 發掘, 紹介 活動．

첫째 時調を 中心으로 한 國民文學派의 民族의 文學樣式 復興 試圖는 그들의 理念이 民族文學의 建設이였던 面서 びりて 了然 必然的 歸結이였다. 文學活動에서 民族을 들고 나선 이상, 樣式에 있어서도 傳統의 것, 固有한 것이 개발,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밀해진 개 時調였던 것이다. 歌辭나 雜歌, 禁例 結説물이라는 業리 時調는 비교적 洗鍊된 文學樣式이었다. 거기에는 그 역사 또한 가장 오랜뿐 아니라 國民文學派가 形成된 年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各界各層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로 의해 쓰여진 것이기도 했다.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運動은 許론 그로써 힘입었던 것이다. ④

한편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試圖를 理論 쪽에서 보면 그 先陣을 담당한 것은 六堂 郭南植이었다. 1926년 5월 『朝鮮文壇』을 통해 그는 『朝鮮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를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時調를 가리켜 朝鮮 心의 放射性, 朝鮮語의 纖維組織이 가장 壓縮된 狀態에서 堅硬된 功能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復興을 추장하고 나았다. 이후 이 方面에 가친 國民文學派의 領要 職業으로는 同上 『時調 毒盤으로의 朝鮮民情』(『朝鮮文壇』1926.6), 孫貧泰, 『時調와 時調에 表現된 朝鮮 民情』(『新民』, 1926.7), 廉想遜, 『時調에 関하여』(『朝鮮日報』, 1926.6), 李秉岐, 『時調源流論』(『新生』, 1929.1~3), 李殷相, 『時調作法講座』(『文藝公論』, 1929.6)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時調가 우리 民族의 高揚한 文學 長 Bodies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促進케 하는데 뿌었다. 또한 이와 并行하여 創作活動을 통해 이에 寄興한 분들은 六堂 郭南植 및 鄭寅普, 李秉岐, 李殷相, 金永鎮, 宋耀翰, 卞榮鲁

④ 國民文學派가 形成되기 이전에도 時調를 近代 文學化하고자 하는 試圖가 一部 文人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령 『少年』을 보면 六堂이 赤糧屬이라는 謎樣을 呑서 時調의 形形이라고 할 朝國風의 試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運動은 完全한 意義에서 새로운 創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⑤ 『朝鮮文壇』(16), p.4.
문학학派 評價問題

曹雪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韓寅哲의 古套, 李秉岐의 抒情的 展開, 李殷相의 脫俗한 가락등은 자가 一家을 이룬 것이어서 비단 國民文學派 의 活動으로서만이 아니라 韓國近代文學史上에 한 局面을 개척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擊論되어야 할 것이『百八煩惱』의 刊行이었다. 『百八煩惱』는 六堂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韓國近代文學상 최초의 創作時調集으로 기기에는 「궁거위」이하 111편의 作品이 실려 있었다.

다음 國民文學派가 制作한 歴史小説로는 李光洙의 「麻衣太子」(1926), 「東明聖王建國記」(1926), 「端宗哀史」(1928), 「李舜臣」(1931), 金東仁의 「金貞光」(1930), 「韓性平重修」(1932), 「李獻宮의 誓」(1933), 崔 白南의 「大逆傳」(1930), 「烽火」(1933) 등이 代表적이다. 대체적으로 이들 歴史小説은 國民文學派가 試圖한 時調復興運動 다음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아마도 時調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해서 歷史小説이 택해진게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話과 맞서기 위해서 國民文學派에게는 좀더 실속 있는 文學活動의 展開가 필요 했다. 그런데 時調과 같은 短形詩歌로는 아무래도 그린 목적이 充分히 達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그 代打者으로 생각된 國民文學派의 歷史小説 制作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생각은 直接적인 證據를 통해 立證되기도 한다. 다음은 「端宗 哀史」의 연재에 저중하여 李光洙가 한 말이다.

단종대왕처럼 만인의 동정의THING을 끌어내인 사람은 조선만 아니라 전세계로 보더라도 드물 것이다(中略). 떼구나 조선인의 마음 조선인의 장차와 단체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명한 선과 악의, 과단한 대조를 가지고 드러낸 것은 역사 전통을 묘해도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부족한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힘하는 데로 조선역사의 축도로, 조선인의 심격의 산 그림의 단종 대왕 사건을 그려 보려 한다.6)

한편 國民文學派가 國土 山河를 찾고 名勝 古蹟, 歷史의 옛자리 마다

6) 『東亞日報』, 1928.1.24.
예찬과 감격을 아끼지 않은 가탄도 역사소설 제작의 경우와 대조가 심하
다. 국토山河와 그 위에 밀려 있는 역사의 터전들은 國民文學派에게
 있어서 단순한 自然物이거나 過去 先人들의 生活 흔적으로 그칠 수 없
었다. 그들은 모두가 國民文學派에게 民族의 精神을 불러
일으키고 民族史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게 하는 刺激을 염두에 두었다.
다음과 같은 六堂의 言明은 그 단적인 보기라 여겨지는 것이다.

朝鮮의 國土는 山河 그대로 朝鮮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詩의 精神입니다(中
略). 나는 朝鮮歷史의 작은 한 學徒로 朝鮮精神의 이설된 한 質者로서 진실로
남다른 愛慕, 喜美와 같이 무한한 공급스러울을 이 山河大地에 가지는 職인들
다. 자세히 하나하나와 다른 나무 한 뿌리에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미와 또 인
상을 자아냅니다. 이것을 조금씩 色譜한 뒤로부터 朝鮮이 위축한 詩의 나라
哲學의 나라임을 알게 하고 또 完全詳細한 實物의 오랜 历史의 소유자임을 깨
닫고 그리하여 샘바순록 거룩한 朝鮮精神의 불기통에 약한 潰滅이 이미 아
득해졌음을 7)

國民文學派에 의한 試圖된 이 方면의 活動으로는 崔南善, 李秉岐, 李
光洙, 李殷相 등의 업적이 있다. 특히 崔南善에게는 聖行本으로 上梓된
것만도 『尋春巡禮』(1926), 『白頭山覲参記』(1927), 『金剛禮讚』(1928),
등이 손꼽힌다. 그리고 이들 앞서 나온 『경부철도노래』(1908)나 후에
나온 『朝鮮遊覽歌』(1928) 역시 그 내용에서 볼 때 상계한 것들과 그 驕
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또한 李殷相 역시 六堂에 못지 않는 造詣로 國
土山河를 예찬한다. 그 중거로 들 수 있는 것이 「暦上踏青記」, 「千里訪
碑行」, 「江都遊記」, 「無等山紀行」, 「雪嶽行腳」등이다. 여기서 참고로
받해 두면 「暦上踏青記」에서 鳥山은 朝鮮의 大自然 앞에 나는 한 信徒
되기 바라는 것이니 8)라고 하고 있을 정도다.

다음 國民文學派에 의한 民族의 理念의 探求 試圖는 그들의 發足이 카
프의 인터・애에 승인 位置를 취하면서서는 온한 결과였다. 카프에
8)『鷗山文選』(永昌書館, 1942), p.4.
대체 안티-테에게 각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문학계에도 그들에 맞설만한 분열이 필요했다.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계, 
民族精神, 民族의 魂을 探求하는 理念 探求의 試圖였던 것이다.

한편, 韓國史研究을 통한 民族的 理念 探求 試圖에서 民族의 地方는 六堂과 爲堂이었다. 六堂은 議論 최초의 新體詩作家, 新文體의 設立者, 青年運動家, 古典의 翻譯 整理者, 時論作家, 已未獨立宣言文의 起草者, 豪放한 文章을 驅使한 隨筆紀行文的 作者, 民族文化 全般에 걸쳐 관심을 표현한 의유의 소유자들 다양한 마스크를 갖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가장 力點을 두었으며 또 学生의 事業으로 推進한 것은 韓國史 研究였다.9 그리고 그의 韓國史는 또한 그것이 撫君時代를 頂點으
로 쌓아지는 民族의 理念 探究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자신의 言明을 통해 확인된다. 다음은 그가 8.15 후 反民 特委에 韓民의 試圖는 「五千年間 朝鮮의 일」(『東亞日報』
1935)에 集約의으로 為堂이 노린 것은 단순한 民族史의 記述이 아니었다. 民族의 歷史를 더듬어 내리므로써 民族魂 또는 民族意識을 提示하고자 하는

9) 이에 대해서는 拙著,『崔南善論』,『韓國現代作家論』(民音社, 1676), 裏aly.
10)『自由新聞』. 1939. 3. 10.
11)『東亞日報』. 1935. 1. 16. 다음과 같은 部分 참조.

우리로서 우리의 歷史를 責하하다 합은 그 紙業이나 行業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遂하여 말하기라도 그 責責을 責하다는 것이 아니요 더 遂하여 그
事業의 造端과 展布과 末果와——紛紛, 交互하여 韓民의 大幹 縫枝에 이르
다음 우리古典의 발굴과 정리 분야에서 牛耳를 잡은 것 역시 六堂이 있다. 일찍부터 그는 朝鮮光文書를 조적 『東史編目』을 비롯하여 『訓蒙字會』, 『類合』, 『龍飛御天歌』, 『熱河日記』등 40종 가까운 한국고 전의 정리와 親訪을 企마였다. 또한 한국근대문화사상 최초의 古時載集인 『時調類聚』를 上梓한 것 역시 그였으며 坊刻本 『香香傳』과 『玉樓夢』 등을 飄簡, 普及시킨 것 또한 그였다. 한편 이 분야를 통한 謀典에는 震 樓學會를 중심으로 한 다수 在野 史學徒와 朝鮮語文研究會의 구성원인 趙潤濟, 孫晉泰, 李熙昇, 金在喆, 李丙壽, 金台俊, 李崇寧, 李在邦등이 한 몫을 담당했다. 물론 震樓學會나 朝鮮語文研究會의 構成員의 國民文學派에도 속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活動으로 이루어진 당시 學界와 文化界의 문위가 國民文學派의 시도와 지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不問可見의 일이다.

세계 民族文化 및 韓國的인 것, 全般에 걸친 國民文學派의 관점 역시 그들의 理念追求나 文學活動과 무관하지 않았다. 企馬하는 바 文學活動 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民族文化, 또는 한국 자체에 대해 정부에 급한 教養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온바르게 理念을 追求하기 위해서도 致力이 없이 多方面에 걸친 知識가 요구되었음은 물론 이다. 한편 이 方면에서 이루어진 國民文學派의 발자취는 古蹟, 文化財의 保存, 重修 補助活動에서부터 民講, 民談, 說話 등의 세집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다. 가령 1931년 莊光洙는 壬辰乱 때의 民族의 英雄, 忠武公의 詞堂 重修를 돕기 위해 地方旅行을 했다. 그리고는 忠武公의 遺蹟地를 踏査, 그 報告書를 東亞日報에 연재하고(12)
이어 李舜臣을 主人公으로 한 역사소설까지 制作하므로 그의 理念의

（是歷史的價值 이에 있지 아니한 아나운의 이것은 것으로는 오히려 貴할 것이 없다(中略). 僅以로 조차 그 일이 나타나고 片時의 閃現하는 그「일」로 조차 千秋, 勳名의 一貫하는 대脊梁——厳然히 나타난 事蹟이 이에 貴하고 厲史」이에 貴한 것이다.

(12)「忠武公遺跡地巡禮紀行」，『東亞日報』，1931.5.21〜6.8.
所在가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릴 바 있다.

민족, 민중들의 채집과 有形, 無形文化財의 계승, 民族 試論은 李殷相, 孫喜泰, 崔南善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李殷相의 「靑麯民謡小考」(『東光』1926.11), 「鄉歌의 歌謡史的 地位」(『現代公論』, 1927. 9), 孫喜泰의 『朝鮮民間說話的研究』(『新民』, 1927.7~1928. 9), 및 六堂의 神話, 傳說, 民謡, 民俗等 全般에 걸쳐서 이루어진 방대한 採集, 紹介등이 그 보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상 國民文學派의 活動에 대한 考察은 물론 심하게 圖式化된 것이다. 그리고 圖式化란 언제나 그렇듯 몇가지 規準에 의해 복잡한 내용을 개단하므로서 심하게 그들을 單純화시켜 버린다. 이제 우리가 그와같은 사정을 고려에 넣어 본다면 實際 國民文學派의 活動이 여기서 이루어진 要約, 整理의 경우보다 한층 多樣하고 또 意義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을 집착하게 될 것이다.

3

多様한 側面을 둘어내는 國民文學派의 活動은 우선 그 史的인 意義를 그들이 남긴 作品이 지니는 마 格調를 통해 論譜해 볼 수 있다. 카프의 異人・他에게 格으로 形成된 것이기는 했으나 國民文學派는 그들의 敵手들처럼 文學을 이메울로서의 侍女로 만들지는 않았다. 물론 그들도 民族이라는 理念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카프처럼 이메울로서의 艦함한 残骸로서가 아니라 實際作品이 둘어내는 藝術的 品格을 통 해 살리고자 한 게 國民文學派였다. 여기서 우선 그와같은 사실은 1930年度에서 193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上梓된 詩集을 檢討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로 밝히면 國民文學派와 카프를 對比시키기 위해 1930年代 前半期가 탁해진 가람은 별 것이 아니다. 비록 그 形成은 1926年度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國民文學派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그
결과를 희생적으로 넣 수 있기에까지에는 최소한 4.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라고 본다. 이것이 30년대로 상한선이 잡혀진 이유다. 또한 30년 중반을 지나면 이미 밝은 바와 같이 국민문학에는 카프는 다같이 그 집단의 한 활동을 종식시켜버렸다. 따라서 30년대 중반 이후는 이들간의 중요한 차이나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다. 우리가 국민문학주를 카프의 대비를 위해 30년대 중반을 잡은 가담은 이상 사정이 합리되었다. 한편 우리 주변에서 이 기간 동안에 출간한 중요한 시로서는 朱躍鳴『홍사꽃(風仙花)』(1930.10), 『카프 詩人集』(1931.2), 梁柱東『朝鮮的 譄博』(1932.2), 『鸚山時調集』(1932.4), 毛允淑『 백나는 地域』(1933.10), 『鄭芝熔詩集』(1935.10), 『永贊詩集』(1935.11) 등이다. 그러나 이들로 7시의 시로서 가프의 출간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시적이 국민문학주의 시로서 둔가 있다. 이 시의 구수성에서는 그들의 시적이 국민문학주의 시로서 둔가 있다. 그러고 이와같은 구수성은 작가의 시적이 구수성을 문제 심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들어난다. 다음 비교는 카프 詩人集 허두에 놓인 金昌鉉의 作品 一部다.

午前 六時

길 머나려는 車가 발바닥을 야경 쳐 이듯이지만 젊은가 맑은 저녁 바람이 大地를 흔들한다(중략).

길은 餐분으로 널려서 그것만큼
그 험은
우리들 채찍질 하였고
우리들 더욱 사랑하지 안하였는데?
몇 분동안의 討論을 오지 묵묵히 보내는 그대와 나
이 沈痛한 공기를 기관차는 헤치고 가는 구나 틀임없는
×××××××의 驚怪과도 같이
「그럼에 부대 편안히!」

曠野를 지나 大江을 건너
車는 北으로 北으로 疾走한다

肚快히 肚快히 ——「車是 北으로 北으로」
카프의 모든 작품이 그런 것과 같이 이 작품의 본격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의미의 강조에 있는것 보인다. 그리고 그런 의미의 객관성을 달리는 기계를 등장시키면서 전투의 숲을 고취시키는 과정으로 가득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개 작품에서 빛어진 말고의 문장은 전혀 모르는 쪽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작품의 자일에서 있어서 단지 아니라 내용 전달의 전개로 보아도 이상한 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의 작가는 한 때 그들 자신들이 <여행자도 우리도>에 서울된 작품으로 평가되기까지 되었다. 이제 이 작품과 국민문학의 심화에 수록된 작품——卞榮魯「문학」, 李殷相「가꽃아」등을 비교시켜 보면, 양자 사이에 이해하는 과정이 좀 더 뚜렷하게 들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문학 수위의 정면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작품 활동의 전제가 된 또다른 논리의 근거를 통해서 보아도 국민문학에게는 두짓이 들어나는 점이 있었다.

우선 일본정부에 있어서 한국문학은 抗日文學의 성격을 뒤 수밖에 없었다. 세상 밤이도 여러 일본 정부가 1910년대 이후 한국에서 낙인 것은 우리의 문학의 수상한 정체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수상한 정체한 정체한 우리의 문학의 정체적 인 백화된 국민 문학을 통해 달성될 일이었다. 정체적으므로 채어 있는 문학은 단단히 문학의 抗日을 企圖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상한 정체가 효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의 입장에서 살펴본 사랑은 전혀 逆意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일본의 企圖대로 정체의 인 백화된 이 루어지는 난 우리 문학이 호위 상태에서 해어날 겉을 전혀 않았다. 즉 노예상태에서 해어나기 위해 일본정부에서 우리 문학은 부득이 정체의 抗日을 企圖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이와같은 논리의 전제에서 문학만이 그 특이가 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13) 尹基龍, 「年評」, 白鐵, op. cit.,에서 再引用
다음 가장 성공적인 의미에서 日帝治下의 韓國文學이 抵抗文學인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신적 基盤이 民族 혼에 놓여져야 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植民地體制下에서 전개되는 抵抗運動은 大衆의 呼應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본래 植民地體制下 유능한 정보, 사찰기구, 갈 까여진 행정, 경찰력과 강한 武裝兵力, 및 방대한 경제력을 토대로 구축된다.

그에 대항하여 民族의 抵抗은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범위에 근한 大衆의 協調와 呼應이 필수불가결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日帝 治下에서 있어서 大衆이란 곧 民族 전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우리 民族은 歷史, 文化的背景, 住居環境과 血統을 같이 하는 單一民族이었다. 따라서 그 利害關係와 感情 역시 地域, 階層, 部類를 超越해 있던 것이다. 따라서 民族 全體가 담당한 難題 解釋결을 위해서 階層, 地域, 部類의 差異에서 빚어지는 偏離關係는 存在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점에 우리가 日帝治下의 大衆=한국 民族이라는 等式關係

을 세울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 이미民族 全體가 抵抗의 主體임이 드러난 이상 日帝治下의 民族의 抵抗이 어떤 양상의 것이어야 할 수도 스스로 들어났다고 보았다. 즉 그 目的地 効果의으로 建成되기 위해서

日帝治下의 抵抗은 必然의으로 民族에 土壌을 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몽론 文學이 그 外部의 아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國民文學派의 정신적 지향이다. 앞에서 이미 살긴 바와 같이 그들의 行動理念에서 核이 된 것은 분명히民族이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가지 단정을 가능하게 한다. 적어도 그 論理的根據라는 大前提에서 본 때 國民文學派가 우리 文學史에서는 최초로 나타난 뜻있는 集團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게 곧 그것은이다. 그러나 國民文學派가 차지하는 史的意義는 단순히 그들이民族의 一面에 섰다는 사실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데에 形成되었으며 또 空間상으로
도 주목할만한 위치에서 있었다. 民間文學派가 대두된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920년대 중후기로 지나서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意義를 지닌다. 20년대 중후기로 3.1運動의 巨大한波濤가 일간 물리 갔을 때로 가리는 카라이다. 그리고 3.1運動은 우리民族가 가진 최초의 學族의 動員이었다. 물론 그것은 一次大戰後에 양성이民族自決의 原則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고 또 어느 모로 볼 때는 自然發生의 인 側面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問題로는 이 充分히 意圖되지 않았고 또 外部의 衝擊에 의해 觸發된運動이 우리民族史에서 初有라고 할 정도로 學族的動員을 이룩해 뻔 점이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韓國近代史上的 大眾動員을 세 段階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3.1運動을 그 完成으로 보면서民族의動員이란 이름을 부친 에도 있을 정도다. 14) 그런데民族의動員은民族의動員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차례의運動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일 이었다. 우리民族의立場에서 볼 때 반드시 그것은 理念化되어 앞으로 展開될民族史의 여러局面에서 보다 못하게 계승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繼承은 물론 一次의으로 한 차례運動의 물결이 지난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일이었다. 따라서民國文學派는 理念的으로 도民族의 探求を試圖한 集團이었다. 그리고 그 形成은 20年代後半期에 이루어졌다. 그 문단의 捕頭時期가 注目되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民族文學運動은 또 가능한限本土에서 그것도 政治, 経済, 文化, 教育등 중심지에서 試圖되어야 했다. 一切民族運動이大衆의 呼應協調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와

---

가다. 大衆의 呼應，協調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呼吸을 같이 해야 한\n다. 그들의 生活과 苦難，現實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그들의\n논점을 이끌어 들일 수 없다. 관심을 모아들이기에 失敗하고야 呼應과\n協調를 바라는 것 조차가 무리다. 한편 大衆과 呼吸을 같이 하는 일은\n 물론 同胞와 親知가 드문 海外에서 제대로 遂行되지 않는다. 一切民族\n運動의 本據地가 被支配民族의 임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惡條件도 아울\n리 갖추고 있는 植民地體制下의 本土가 되어야 할 所以가 여기에 있다.\n또한 어느 의미에서 民族運動는 啓蒙，教育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血\n緣과 利害，文化的背景이 共通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도 가르치고 일제\n우기 전에는 다시 民衆을 抵抗運動에 가담케할 수 없다. 더욱이이나 植民\n地體制란 貢獻적으로 被支配民族을 그런 것에서 부터 거제，망각시키고자\n하는 企圖가 支配의 任子를 차지하는 體制다. 前者 有利하다고 볼 수\n없는 그와같은 狀況 속에서 자신을 알리고 民族意識을 일깨우는 일은 그\n리므로 民族運動의 本論이 된다. 每年 그 活動이 啓蒙，教育의 與望도\n미어가 하리라는 民族運動의 전체에 비추어 볼 때 政治，經濟，文化，教\n育의 中心地가 그 本據地로 택해야할 할 까닭도 스스로 明白해진다. 한\n마디로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야 그 영향력의 폭도 그만큼 커지리라는 三\n段論法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아기는 조급할지지만 文化運動理論\n家 가운데에는 啓蒙，教育活動의 이와같은 側面에 着眼 根本의으로\n그런 일이 都市 中心의任 性向을 띄는 것이라고 본 일도 있다. 
15) 都市 以外의\n 지역，과 民村과 僻地에서는 交通부터가 분명하다. 적은 努力으로 보다\n豊富한 成果를 얻어야 하는 啓蒙教育活動에서 都市가 有利한 位置에 설\n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활들\n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國民文學派가 차지한\n空間의 體裁이 아주 적절했다는 사실이 곧 그것이다. 구대여 밝힐 것도

이며 그들의 활동 본질에선 한국이였으며 그것도 그들 문화를 차지하 시운 을 원리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외의 경우는 사정이 그와간지 몰랐다. 국제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 있는 학문이 있는 편이나, 일부 인문도의 활동은 싱가포르,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활동 지향한 신간의 반응은 우리의 말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에 반해서 국문학파는 문학 활동을 위해서 거의 이상적인 이라는 활동의 본질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 의 논리로 인해 된 현의미며, 이는 그들이 평소의 정의를 위해서는 것으로 보아진 점이다. 그러나 그들 일의 시그 그들이 차지하는 적의의존을 위해서는 프리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람이 없다.

셋째 국문학파가 취한 문학의 태도는 또다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일제 침략의 민족운동을 역할의 역할으로 보고 민족을 그 역할의 주체로 본 것은 국문학파에 한 것이 아니라 기타 민주주의자들 또한 꿈꾸었던 생각이다. 가령 노무현의 소설 같은 것은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다. 한국혁명에서 노무현은 종종 강인한 목소리로 한국 민족의 살 길이 일제를 한국에서 구축하는 틀이라고 부르므로. 그러고 민족은 민족을 한국의 대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가 도달 시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나기 분명한 문학을 적지 않게 우리와 달리한다. 가령 그가抗日抵抗의 목적 부지에 문학의 전개는 꾸준하게 나머지 종.사범하고 계 문화와 문학을 규정하고 있는 것. 노무현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민족수집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적의 합법적 활동은 허위 상태의 연장

을 칭원하는 행위가 된다. 植民地 體制下에서 一切의 活動은 日帝의 偉
聞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日帝가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許容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合法의으로 이루어지는 一切活動은 非抵
抗, 安協, 奴隸狀態的 延長行爲라는 건본의 導出된 섹이다. 그러나 우
리가 알고 있기에에는 要素의 이와같은 論法에 少少의 우리가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日帝治下에서 制作, 發表된 一切의 文學作品도 非抵抗, 安
協, 植民地體制 迎合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반드시 그럴지 않은 상당수의 作品이 있다. 다음에 드는 金
永鈞의 作品은 이란 경우의 우리에게 한 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내 가슴에 꿈을 간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출한 안 없는 새로운 땅을
빛은 그 무서운 빛 그만 흔들어버리다 한다.
나는 그 빛이 선뜻 빛도 흔들지 모른다고 위험하고
歿 안소하고 살아도 미쳐 야니 나 마주 가버리면
儒義世代가 그 위로 잠자로 흔들어가고
나중에 망당이 모자라서 모래알이 될 것임을
〈虛無한의！〉 빛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네 세상에 내어없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해부가 있던가 〈虚無한의！〉

허나
앞뒤로 덮비는 이리 승상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신체 감동의 밝이 되어 밤기우고 할퀴우라 내밀긴 신세임을
나는 虛む 차고 선신히 가리라
막을 낼 내 외로운 魂 건지기 위하여.

----「虛무 차고」全文

이 作品에서 虚은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한 결과로, 그리고 그것이 분가
능할 때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
고 3편 마지막 두 줄로 金永鈞의 그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도 대
개 집착된다. 《앞뒤로 덮비는 이리 승상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집중의 밤이 되어 빗기우고 황취우라 내 발간 신세임을 일. 일적 봉래은 불거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陰影을 가벼운 가락에 싶어 은은 민謳謷 抒情詩人이었다. 그의 作品은 특히 內面 空間의 探求라든가 그에 서 빗어진 苦惱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기로 이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내세운 여기 종강이가 바람간 일어난 땅이라든가 定定의 要素의 일반적 인 상징일 성질자는 없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은 이 作品이 쓰여진 年代를 考慮에 넣어 본 때 더욱 확정적인게 된다. 이 作品이 쓰여진것은 1939년 11월이었다. 그때 이미 日帝는 各級學校에서 朝鮮語科目을 廢止했다. 그리고 이와 同志佐制 実施・創氏 改名 강요, 우리말의 全面 使用 禁止강요이 強行되었다. 그런 狀況 속에서 永郎은 그의 純粹조차를 지킬 젤이 없었다. 이렇게 봉래 (앞뒤로 담비는 이리 종강이)는 그의 精神的 生命 곧 純粹라든가 詩를 쓰 言語마저를 배앗아 가는 日帝로 보아야 한다. 日帝를 이리 종강이에 비유하고 그 위험 앞에서 끝까지 자 신의 節操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본 때 이 詩는 어병한 抗日抵抗의인 것 이다. 그런데도 이 詩는 過去 總督府의 檢閲을 받는 文藝誌「文章」에 계제되었다. 만약 藥齋의 말이 그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實現된 센이다. 그렇다면 日帝가 失手을 犯했거나 展대히 보아 넘긴 것일가. 여기에서 그럴다는 뜻이 나올 程度로 日帝가 어리석은 統治者는 아니었다. 또한 當時 狀況은 그들의 本國에서 조차 無差別 拘禁과 投獄이 틀리게되고 있었을 때다. 日帝가 특별히 우리 詩人에게만 容容을 베풀었는가능성도 없다. 결국 藥齋式 思想에는 한 가지 盲點이 있었다. 본래 文學특 히 詩는 象徵의인 言語을 쓴다. 그리고 이 경우 象徵의인 言語만 반드시 A를 A로 提示하지는 않는 言語를 가리킨다. A라라는 詷苦에 대해 習慣 다른 等價物을 代替시키는데 象徵의인 言語의 妙味가 있다. 그리고 A가 A아닌 것으로 提示되기 때문에 文學은 드물지 않게 그 內容의 仿製이 가능한 것이다. 永郎의 詩가 日帝의 檢閲로에 걸리지 않은 것은
그런데 가담이 있었다. 그리고 丹齋式 文學觀으로는 文學의 이와같은
側面이 說明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國民文學派 즉으로
음저지는 그 사정은 180° 달라진다. 이미 밀한 바와같이 國民文學派는
民族文學運動을 理念 一透倒, 國式的인 立場에서 한계 아니라 그런 데
두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결과 그들의 文學은 民族의 要求를 護법하지
없이면서 동시에 文學으로서의 眞實도 살릴 수 있는 게 되었다. 이것이
國民文學派가 獲得하게 된 또다른 意義다.

4

 물론 國民文學派에게는 誇張되어야 할 側面과 함께 倫落되어야 할 部
分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한마디로 國民文學派의 界界라고 말할 수 있
은 것이다. 國民文學派가 지니고 있는 첫째 界界는 그들이 建設하고자
하는 民族文學 대지 韓國的文學을 너무 平面의이며 安易한데서 求한데
있었던 것 같다. 일찍 우리가 民族文學 또는 韓國的인 文學이라고 할때
그것을 단순하게 한글로 쓰여진 文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韓國文
學이 우리 民族의 生活이나 過去의 일에 限한 것일 수도 없었다. 또한
그저 平面의인 立場에서 과거 우리가 使用한 장르나 스타일을 復活시키
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들 一體의 事實들은 國民文學派에게
잘 認識되지 않은것 보인다.

한마디로 民族은 理念의 求心點으로 한 文學, 곧 民族文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民族과 文學이라는 두 개 異質的 要素의 調和・統合을 위
한 試圖를 先行시키는 일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民族을 形成시키는
諸要素는 곧 血緣關係・地緣・政治・經濟・文化的 共同性과 歷史的 運命
의 連撃性이다. 그런데 이들이 一體 問題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 어느 것을 택해 보아도 時間과 空間概念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야기가 문학의 경우에 이르면 그 사건은 전혀 달라진다. 본래 문학이 노리는 것은 영리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이 둘을 통하는 바 또한 영리성・경련성으로 이야기되는 초월과의 세계다. 따라서 문학의 건설은 이 모순・충돌하는 두 요소들 효과의 육합・양식시키고자 하는 의문과 함께 출발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사례에서 본 때, 문학의 노리는 이와같은 자취가 별로 두려워 들거나 지는 않는다.

우선 문학의 건설을 위한 문학의 노리는 하노이。한국문학의 개념의 경우가 있다. 문학의 건설을 위해 한 계 문학이었다면 또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문학의 하나는 문학일을 의 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학이란 어떤 것이나, 적어도 그 테두리를 어디에서 잡아야 할 것인가 등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상세 문학의 노리는 어떤 그 깊은 의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활동한 논리의 발판이라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실질상의 문제점은 남겨두는 것이, 한국문학의 역동적・사실적 활동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남겨두는 것이, 한국문학은 이와같은 논리를 실천의 바탕에 주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경우의 한 조건되는 측면의 일부이다.

전세。사변。동화。문학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문학)"" 이는 대학의문 학문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상 내용층은 『벽노비』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문학)"" 이는 대학의문 학문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상 내용층은 『벽노비』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문학)"" 이는 대학의문 학문의 전재는 전세。설의 교과서로 『벽노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春香傳』, 現代朝鮮作家의 作品이 일 것이다. 만일 포우르의 호수며, 西洋學의 教科書이 되는 모양으로 朝鮮文學, 其他 外國 文學에서 朝鮮文學으로 써끔 翻譯된 것이면, 그것은 朝鮮文學의 教科書로 써도 좋다. 그러나 아 kurulu 하더라도『李朝實錄』이나『九雲夢』(正音譯은 除外하고)『申紫霞詩集』 같은 것은 天地가 새로 開闊이 된 뒤에는 물라도 그 前에 朝鮮文學이 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므로 朝鮮文學을 위하여서는 太學館은 아니기에 보는 村家 사망만 못하였고, 大提學, 副提學은 무당과 女生만 못하였던 것이다.

朝鮮文學이란 무엇이뇨.
『朝鮮文으로 쓰 文學이라!』(17)

이상과 같은 勉光洙의 생각을 요약하면 결국 韓國文學=한글을 表現 媒體로 한 文學이라는 등식관계를 시인하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은 그 論理의 自然적인 歸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 뿐이었다. 우리 우리가 韓國文學을 問題삼게 된 것은 그것이 民族文學建設을 위한 한 方便이 될 수 있는 점에 그 意義가 있었다. 그리고 民族文學이라 말할 것은 없이 民族의 精神遺産을 總體의 人立場에서 그 것도 가장 傑出를 뿌어서 繼承하는 作業이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李光洙式 韓國文學의 概念規定으로는 그와같은 民族文學建設의 地平이 打開 될 수 없었다.

또한 國民文學派는 古典的인 樣式의 復興試圖에 있어서도 너무 過去 에 치우침 느낌이 있었다. 본래 國民文學派가 古典의인 樣式을 復興고 가한 것은 傳統的인 것을 繼承・伸張시키고자 하던 그 뜻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國民文學派의 指向이 民族文學의 建設에 있음을 勘案해 볼 때 매우 당연한 사태의 歸結이었다. 民族文學建設에 서 民族을 認識한다는 것은 그 文化傳統을 認識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國民文學派가 이 方面에 보인 配慮에는 당연했다는 評価가 가능한 것이 다. 그러나 정적 國民文學派는 이 樣式의 繼承에서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17) 勉光洙, 『朝鮮文學의 概念』, 『新興』(1929.1), 『李光洙全集』(16), pp.175~178.
국민문학派 評價問題

무언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樣式的 繼承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은 과거에 있던 形態나 文體를 그대로 踏襲하는 게 아니었다.
본래 人間의 趣向이나 時代나 狀況과 函數關係에 놓인다. 그리고 文學
作品的 形態와 文體는 一次的로 趣向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미 趣
向이 變하는 데 樣式과 그 內容의 形態, 文體만을 固定 不可變의 實體
로 보는 行為야 말로 妄想이라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文學의
基礎理論은 國民文學派에게 충분히 認識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는 그 가장 刻銘한 자취 가운데 하나로 時調復興을 위한 試圖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時調는 過去人이 過去의 時代精神, 過去의 生活意識를 表現함에 그치나 過去
인 우리에게 交渉이 없다고 할지는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厲史가 그러한
것과 같이 過去는 現在의 母胎이다. 그 意識이나 感覺의 深淺 또는 相異는 있
을지라도 거기에 朝鮮人의 呼吸, 朝鮮人の魂이 綿綿히 호르고 염하고 더진 것
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藝術일수록 思想, 観念, 感情, 感覺의
相異를 超越하여 朝鮮的이라는 領域 아래의 我們를 힘 있게 불러 줄 것이다.
그 대신에 그것은 朝鮮人以外의 사람이라도 一般的으로 사람의 情緒라든지
感覺이라든지 또는 藝術的價值를 感得할 수는 있어도 朝鮮人이 發見한 그 무엇
을 모른 것이다. 그 만큼 時調는 우리 것이요 我们가 가꾸어야 할 것이다. 18)

여기 나타나는 바와같이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試圖는 단순히 時調가
가장 한국적인 形態를 가졌으며 또 가장 길축히 우리 民族의 骨髄에 박
혀온 藝術가기 때문이라는 次元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傳統을 繼承하는 일은 過去를 過去 그대로 査得하는 일이
아니었다. 보다 그것은 그들을 當代의 狀況에 적용, 作用가 하는 努力
이었던 때문이라. 그럼에도 時調復興을 위한 國民文學派의 時調에서 我
는 이런 論理의 前提가 認識된 자취를 明白히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歷史小説의 경우에도 適用된다. 엘리트
우리가 歷史小説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곧 歷史的 事實에 取材한 作品으

18) 廉相洪, 「時調에 對하여」, 『朝鮮日報』1926.12.6.
로 집착하기 쉽다. 그러나 과거 사실만을 취하고 당대의 현실에 무관한 작품이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전하할 수는 있어도 역사소설은 아닐 것이 다. 역사소설이라면 좀 더 크게 볼 때, 역사적 작품의 한 장르다. 그 리고 문학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와 함께 한 시대, 한 지역의 현실에 배합될 수 있는 작가意識이 내비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국문학계의 구성원이 되어이, 작품을 보면 그런 요구는 소쉽게 충족되지 않는다. 가령『통종哀史』에 등장한 것은, 서두정조의 왕과 왕조고 또 그 멀지 않은 시대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생활, �егодня의 고유한 항상의 과거에 이른다. 『유진의 일』에서 민족의 영웅의 형상으로 한 역사소설이다. 물론 거기에 민족의 영웅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 영웅이 과거의 의지를 멈추어 있는 과거의 의지를 충분히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에 비한 다면 『절추의 그물』이나 『언각운의 술』에는 좀 더 우리와 가까운 시대가 배웠으며 등장하기는 한다. 두 소설의 상황적인 무대는 1920년대 후반의 형태도. 그리고 거기에에는, 최초의 민족의 형상과 그를 위해 활약하는 선배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과 역대의 형상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1920년대의 후반 또는 1930년대의 하반기의 죽음의 생활에, 일반적 관계가 등장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기타『大盗傳』, 『烽火』 등에 이르러서는 구태어 여기서『拳論의 필요소자를 느끼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재미를 위해서만, 통용소설 이상의 것이 갖춰진 때문이다. 일제의 기간은 국문학계의 역사소설에, 대해, 사적, 무적, 관념적, 형용사를 씌어서, 이것을 가졌다. 그에 의하면, 국문학계의 작품들은 살아 있는 인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忠義観念의化身』이 등장하며, 부수하고, 비극하는, 현실의, 모범이 아니라, 부수가 그 자체는, 이 현실의 영웅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또한 모든 작품은, 시대의, 그 작품 속에서 의의가 있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라 그저 냉정한 행동, 공정성과 유속적 문제가 다루어진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물론 이상 김기철의 생각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는 국민문학에의 소설에 나타나는 이상의 방법을 악수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과학적 사회과학의 지식으로 간주해도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박해어야 할 것인가는 문제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과학적 방법을 그 방법을 과학에서 밝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기도 하다. 그는 과학적 인용으로 본래 금기철의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의 역계적 역사소설들의 결함에 비추어 본 때 그의 지적이든 또 어려움에서 얻어야 할 잔이 없지 않다. 어 nhi면 역사소설을 통한 국민문학의 직권에 반드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민문학의 민족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사실은 조광범의 과정을 통해 정직으로 들어났다. 먼저 조광범의 민족에 대한 생각은 그 특성이 내려의 이론이다. 《민족극능화론》을 통해서 보면 어떤 조광범, 조광범가 민족주의자였다면 사실에는 난관의 적이 없다. 언제나 그가 선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귀족, 귀족이었다. 그는 또한 민족의 귀족과 귀족은 바람기래의 추천 풍습의 제도에서 불편하는 민족의 부적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의 많은 글에서 그와같은 지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조광범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부적의 원인을 민족 내부에서 구하여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결함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결함으로, 도덕의 부적은 대단했다. 이는, 사회의 균형, 균형, 균형, 사회적의 균형이 논 그 내용들이다. 20)

도덕의 부적은 민족의 저자는 부적의 원인을 수하고 있는 조광범은 또

19) 조광범 《cit.》, pp. 160~161.에서 사용. 20) 조광범, 《민족극능화론》, 《연민》 (23) (1922.5), pp.36~37.
한 그 止揚，克服策으로 個人의 自覺과 人格修養을 통한 集団的 活動을 提倡했다. 그에 의하면 自覺한 個人이 集団을 이루고 그 集団이 影響力を 行使하면서 大衆을 的격어 가면 곧 우리 民族의 道德の 墮落이 克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그의 생각은 심계한 「民族改造論」에서 뿌만 아니라 그를 진후에서 쓰여진 「少年에게」(『閉闈』, 1923.3), 「野心 朝鮮人の 所顧」(『東亞日報』1928.9.4～19),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東光』, 1932.2), 「野心 朝鮮人根本道德」(『東光』1932.6), 「朝鮮民族論」(『東光叢書』1933.6～7), 「民族에 관한 몇 가지 생각」(『東光叢書』, 1935.10) 등 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語調로 되풀이 된다. 미루어 이 무렵의 李光洙가 어떤 民族觀을 가지고 있었는가 진각된다고 볼 것이 다.

한편 이와같은 李光洙의 民族觀은 그 발표 당시부터 매우 激烈한 反撃을 샀다. 그의 民族의 不幸=道德の 墮落說에 대해서는 正式으로 그根據를 제시하려는 反駁文이 나왔는가 하면21) 一部 過激分子 가운데는 暴力を 行使하는 사례까지가 起起하였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보면 殺使 李光洙의 發想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反應이 감정적 言辭나 힘을 行使하는 마위 일로 표시되어야 했을까는 疑問이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마انا한 일은 論理의 矛盾의 指摘과 그를 통한 止揚，克服策의 模索일 것이다. 잘못된 事態에 대한 止揚，克服은 感情의 行動으 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面밀수록 차분히 事態을 咅味，檢討하는 마 음의 姿勢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李光洙의 民族觀에도 잘못된 점이 있 었다. 우선 우리가 겪는 不幸을 고스란히 그는 우리 자신의 허물에 돌 려다. 그러나 그것은 全의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日帝 植民地體制下에 서 우리 民族이 겪는 不幸은 우선 우리가 主權을 壊 Darwin 面에 있었다. 그

21) 崔元淳, 「李光洙에게 開하노라」, 『東亞日報』, 1922.6.4.
리고 우리가 주권을 소실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일부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잘못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다. 독립을 유지한 것이 새로운 민족의 탄생을 하지 않았다. 그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독립은 독립의 새로운의 정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족의 부활은 새로운의 정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의 부활은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독립 이외에도 우리 민족의 그룹인 민족판이 및 어렇건가 하는 사실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가지로 적절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것이 곧 민족판의 안정한 현실이자 피도다. 즉 민족판은 정작 민족이 무엇이며 한국계의 민족의 핵심이 어떤 것이가 그들의 결속이 무엇이며, 그 결속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차분히 파고들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한가지로 적절을 한가지로 적절을 통해 민족의 도달점을 논리화하였다. 그의 적절은 이론에서 이미 판매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민족판의 적절을 보완해달 사망으로 우리는崔南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판의 달리崔南喜는 박물관에 속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이미 많은 바와같이 한국사에 관해서 발전한 자료를 정리에 있었고 또한 대단한 정립을 기우며 그를 얻어볼 장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정립은立て박물관의 임무에서 민족의 본질을 정리해가기에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의 그와같은 좋은 것을 위해서도 적절을 하는 또다른의 적절요건을 갖추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하여 바람직한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게 되어버렸다.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崔南喜는 예술의 학문, 관객의 학문

22) 金鹂九,『新文學 草創期的啓蒙思想과 近代的自我』, 『韓國人과 文學思想』(一潮間, 1964). pp.73~76. 참조.
가령 그는 증君時代研究에서 증君(그는 증君이라고 표기한다)이 계통이라는 것과 그것을 光明思想과 連結시키기 위해서 一途의 語原論을 열었다.

古代朝鮮에는 太伯山을 舞蹈로 하는 増君的 建國神話가 至今도 傳承되어 있는 등 一律의을 産 경으로 影響로써 増君 그는 人文의 蹚跡으로 삼아 있음이 없다. 그러기에 그 増君의 神話에는 太陽과 그 抽象화된 天과 그 人格化「그의 빛」가 흔히 분명하고 그 根幹을 이루고 있음을 본 수 있는 바이다. 例를 들면 書道解의 本國인 正明(正明)이 그 것이다. 招致 彼代에 있어서도 建國의 說話에 서도 같은을 結論시키고 있다. 例을 들면 高麗王朝의 祖宗가 旭日(旭日)으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増君 또는 天이라고 보는 것은 tengri 正 또는 日로 park에 論述 되는 場所 또는 譯字인 것이다.239)

이와 같은 六堂의 생각이 정당한 계 되기 위해서는 우선 増君의 背景의 誤記임이 밝혀져야 했고 또 그 背景이 蒙古語 tengri의 ten에 对比되는 論據가 成立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前提에 대해서는 아무런 解決도 없이 六堂은 光明思想(光明思想)을 우리 民族 古代의 中心思想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 民族史를 살펴는 한 基準으로 삼았던 것이다. 본래 民族과 民族의 理念 또는 民族史에 대한 探求는 崇高히 조심스럽게 또 合理妥當한 結論이 나올 수 있는 角度에서 試圖되어야 했다. 그렇지 못할 때 모처럼의 試圖에도 不拘하고 그혹은 民族觀이 成立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혹은 民族觀에 立脚, 大衆이 動員되고 文學活動이 展開된 경우의 事態를 생각한다면 民族의 探求가 応じ아게 되어야 되는 까닭은 스스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基準에서 본 때 建國史研究를 根幹으로 한 崔南善의 方法 역시 満足한만한 것은 못 되었다. 그의 民族史 探求에는 매우 지나친 偏頼이 介入되어 있었다. 偏頼이 일으킨 副作用을 생각해 본다면 六堂의 方法 역시 밝은 계 못됨은 議論의 餘地가 없는 일이다.

239) 崔南善, 「不成文化論」, 『六堂崔南善全集』
국민문학派 評價問題

결국으로 問題이어야 할 것에 郷土感情이 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郷土感情이란 民族意識, 民族感情의 下位概念이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장을 아끼는 情이며 따라서 原始의인 郷土愛라고 할 수 있다. 大局의

인 見地에서 國家, 民族을 생각하는 代身, 出身地域과 幼年時代의 追憶, 血親과 이웃에 그 사람의 原點을 求하는 게 이 感情의 特色이다. 이에

國民文學派의 構成員들은 이와같은 感情의 斷面이 들어남은 그들의 作品 여기저기서 散見된다. 가령 金僕의 詩에서 자주 탁해진 景象은 郷山,

定州동 西北地方的地名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 산과 들판, 바다는

外的 之貌의 對像이 되고 있다. <에 故郷은 郷山의 黃浦가 있다.>

(『故郷』). 『東路坊川 넓은 벌은/물이 맑아 黃川이요/망이 좋아 命土라네』

(『東路坊川』). 『身彌鳥라 三角山/갈매기 우네/갈매기 세계깝고/신어서 우네』(『갈매기』). 그리고 이와같은 態向이 朱鎬卿이나 金載月, 朱辰相

등에게도 다같이 나타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問題 삼고자 하는 것이 國民文學派의 構成員들의 故郷에 대한 그림 자체가 아니다. 常常스러운 이야기의 作品이 취할

수 있는 素材는 無限大이다. 오히려 어떤 素材도 排除하지 않는에서 좋은

作品은 誕生한다. 또한 어떤 作品을 위해 郷士感情이 禁制 命土에 들어

가야 할 理由도 없다. 그렇다고 보다 大部分의 文學作品, 特히 詩를 위

해서 興趣는 상당히 요긴한 發現이 될 수 있다. 그것은 詩作의 모티브

으로서 興趣가 比較의 純粹한 感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정

음 나아가 방약 우리가 갖는 郷土感情이 民族感情에 相反乖離되는 것이

라면 그것은 問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國民文學派의 當面課題가 民族

意識의 攀附했기 때문이이다. 다음 郷士感情이 民族感情의 下位概念이라

고 했으나 그 逆은 반드시 例이 아니다. 즉 모든 郷士感情이 民族感情

에 包括되고 受容, 滋養化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본래 이 경우의 感

情이란 우리 자신의 個性에 關係되는 것이다. 그런데 郷士感情이 個性
의 직접의 형태라던 민족感情은 그 抑壓 내지 調整된 形態다. 前者와
後者の差異에 대하여『政治와 歷史에 있어서의 國民性』의著者인 헬츠는
채미 있는 사실을 紹介하다. 그에 의하면 獨逸의 勇將 몰트케는 日記와
아내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戰火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데바 憔悴하므로
써 다못하고 多情多感한 一面을 보였다. 만일에도 將軍으로서
그는 독일에 有利하다고 생각하자 戰端을 일으키고 韓民族의 中立을
無視하며 丙 12月 30일에 突破했다. 14) 이것은 私的인 個性이 民族의인 單位
에 연결되는 個性과 어찌하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端의인 보기가 된다. 그
리고 前者에 관계되는 것이 鄉土感情이며 後者の 것이 民族感情이다.
헬츠는 兩者の差異에 대한 民族的個性이 單位體로서의 個性에게 妥協
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個人이 民族의 威侮 앞에
屈從하는 가담은 그를 통해 앞으로 그의 個人的인 性格이 伸張되기로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 그야 어 lẽ도 이와같이 主從關係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私的인 個性은 民族的 個性과 對等하게 다룰리고
하는 경우 곧 兩者は 모순, 충돌한다. 이 경우 우리는 한 보기를 韓民族의
民族主義者들의 行動에서 구할 수 있다. 廣義的民族是 愛와 삼상수에
달하는 國民志士들이 國境을 넘었다. 그들의 言은 融合 獨立運動
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들에 상당수에 달한 사람들이 그
듯을 中途에서 빠지고 日帝가 支配하는 韓半島로 되돌아 갔다. 이유는

25) Ibid., p.27. 參考로 原文을 그대로 적어보며, The striving for national
personality often implies the sacrifice of individual personality. We are
compelled to subordinate our spiritual and material interest to those declared
as national interests and to conform our mentality and behaviour to the
so-called national character. One of the principal reasons of this attitude
is that the individuals are overewed by the power, greatness and fame of
the nation and hope to enlarge their individual personality by merging it
in the collective.
그들 마음속에 주관적입 무의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일과 무관하게 그들에게는 따뜻한 인물, 그들의 동물과 품리들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이 한가지 사실은 방실감에 민족의 인 감성과 반드시 일치, 희생되는 게 아님을 말해 준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문학의 속에 

出没하는 방실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국민문학의 방실감에 민족감에 逆背되리라는 確定 證據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감성이 너무 지나치게 我田引水 

格인 점은 어쩔 수 없음을 염두에 한다. 가령 六堂은 『金剛禮讚』에서 다 

음과 같이 金剛山을 가리 멀지 않았다.

朝鮮人으로 朝鮮의 第一 무인을 묘르면 아무리 떠든지 큰 耻恥입니다. 

그것이 世界的의 第一은 한 것이면 그를 묘르는 耻恥도 그만큼 더 큰 것입니 

다. 金剛山은 어떤한 意味로든지 朝鮮의 第一이고 無하다 世界的의 第一이것 

다. 朝鮮뿐만 아니라 世界은 풍토가 다이는 적이 없고 전준이 없는 唯一特絶 

한 天地間 奇蹟입니다20).

물론 우리는 金剛山이 名山임을 否認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것이 世界的의 與 『唯一特絶』한 奇蹟임이 立證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論據가 必要했다. 그러나 234면에 걸친 六堂의 『金剛禮讚』에서 그게 이 

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다. 그저 金剛山을 가리고 그 훌륭함을 되돌이 

말하고 있는듯 보이는 게 『金剛禮讚』이다.

이제 이어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國民文學派의 方室感에 

되어 警戒心을 품는 가장도 대개 간작되리라 믿는다. 즉 國民文學派는 

그들의 감성을 一統하고 公의인 것으로 만드는 데 機能의인 땐이 못되 

었다. 그런 이상 私의인 感情에 최우로 民族感情내지 民族意識을 矯曲 

偏向의인 것으로 만드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國民文學派가 

지난 限界點에 이와같은 事情이 考慮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이상 몇가지 결점을 함께 또 우리는 국민문학의에 편견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음을 보아 왔다. 따라서 국민문학의를 중요하게 아울러 가능한 문학의가. 또 그경기 때문에 앞으로도 되풀이 우리 주변에서 편견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리라 믿는다.